

무엇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가? :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 탐색*

강 동 우**

I. 머리말

양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삶의 물질적 측면은 개선되었지만 양적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수준의 성장과 반드시 연관되지 않는다는 ‘Easterling(1974)의 역설’은 국내총생산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의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 삶의 지표’를 2014년부터 공표하고 있다(통계청, 2017).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 또는 행복도를 인구 및 사회조사 설문지의 응답을 통해서 측정하는 주관적 측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Ballas, 2013).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등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된 주관적 행복도는 조사에 참여한 개인의 특성이 함께 파악되기 때문에 행복과 개인 특성 간 상관관계의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관적 행복도 조사자료의 특징으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행복의 경제학’과 같은 독립적인 연구 분야가 등장할 수 있었다(Dolan et al., 2008; Ballas, 2013). ‘행복의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실증연구는 주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 개인 및 가구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지역수준의 특성과 행복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개인 및 가구 특성 중심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지역수준에서 이용가능한 자료가 그동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Ballas and Dorling, 2013).

* 이 글은 안주엽 외(2017 발간예정), 『일과 행복(III)』 제8장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dwkang1982@kli.re.kr).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경제학 분야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연구들 역시 많은 경우에 소득, 연령, 학력, 직업, 가구원 수 등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일부 연구가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간 평균적인 삶의 질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비교하거나(김승권 외, 2008), 지역수준의 인구, 경제, 행정학적 특성이 행복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강성진, 2010; 허만형, 2014) 제한된 지역 특성 변인만이 포함되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 변인은 광역시도 지역수준에서만 측정되고 있는데, 광역시도라는 공간적 수준은 개인이 일상을 영위해 가는 공간보다 다소 광범위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행복경제학 분야에서 실증분석이 부족하였던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와 지역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행복도 결정요인 모형의 틀에서 개인수준의 주관적 행복도와 지역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광역시도 수준보다 더욱 세밀한 시군 및 시군구 수준의 다양한 지역 특성 변인을 이용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지역 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행복도와 지역 특성 간의 관계 탐색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모형과 지역 특성 변인 및 자료가 소개된다. 제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제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한다.

II. 지역 특성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행복도 또는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행복경제학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개인 및 가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지리학, 도시 및 지역연구, 지역학(regional science), 지역경제학 등 지리적 접근을 강조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 측면에서 지역 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개인의 행복도가 연령과 직업과 같은 개인수준의 특성과 가구소득 및 주거유형과 같은 가구수준 특성에 의해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장소 및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차원의 맥락적 환경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Ballas and Dorling, 2013) 지역 특성이 중요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 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Clark(2003)으로, 이 연구는 영국 가구패

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자의 행복도(well-being)와 지역 실업률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실업률 자체는 행복에 부정적이지만 주변에 실업자가 많을 경우에 실업의 고통이 약화되는 맥락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Luttmer(2005)는 미국 가족 및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행복도와 지역 평균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지역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Berry and Okulicz-Kozaryn(2011)은 미국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소규모 도시의 행복도가 높은 경향을 발견하였다. 국내연구로는 강성진(2010)이 대표적인데,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행복도에 대한 1인당 지역소득의 부(-)의 효과를 발견하여 Luttmer(200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도시에 거주할 경우 개인의 행복도에 부정적인 경향을 발견하였다. 허만형(2014)은 통계청의 16개 광역시도 지역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과 삶의 질(EQ-5D) 간의 상관관계를 지역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 수준에서 측정된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이 넓을수록 시도 수준의 행복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강성진(2010)과 허만형(2014)의 연구는 해외연구에서 확인되는 지역 특성과 행복도의 상관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지를 밝히는데 기여하였으나, 분석모형에서 사용된 지역변인이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보다는 광범위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 지역 인구 및 경제 특성은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지만 복지, 문화체육 등 지역어메니티 특성이 통제되지 못하였고, 후자의 경우 지역 인구특성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광역시도 수준보다 세밀한 시군 및 시군구 지역수준의 다양한 지역 특성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행복과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Ⅲ. 분석모형과 자료

지역 간 행복도의 차이는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s)와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Ballas and Tranmer, 2012). 구성효과는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지역 간 행복의 차이가 발생함을 설명한다. 지역을 구성하는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개인 및 가구의 지역 간 특성 차이는 지역 간 행복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맥락효과는 지역 특성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설명하며, 일례로 오염시설이

많은 지역의 환경 특성이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복도를 구성효과와 맥락효과로 구분하는 Ballas and Tranmer(2012)의 접근법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과 행복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식 (1)은 실증분석을 위해 구성한 선형모형으로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가 개인 및 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으로 설명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¹⁾ 식 (1) 좌변의 행복도_{ijh}는 종속변인으로 h번째 광역시도의 j번째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i의 행복도를 나타내며, 우변에는 개인 및 가구, 시군 또는 시군구 지역의 핵심적인 특성 변인들이 설명변인으로 포함된다. 모형에서 광역시도 더미변인은 광역자치단체 지역수준에서 지역 간 미관측 특성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포함되었다.

$$\text{행복도}_{ijh} = \alpha + \sum_k \text{개인가구 특성}_{ijh,k} \beta_k + \sum_r \text{시군구 지역 특성}_{jh,r} \gamma_r + \sum_{h=1}^{16} \text{광역시도더미}_h \delta_h + \epsilon_{ijh} \quad (1)$$

실증분석에서는 KLIPS 18차의 2015년 횡단면 통합표본 13,373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표본 중에서 행복도 응답의 결측치와 무응답,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에서 설명변인으로 활용되는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무응답, 18차 조사 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가 ‘0’인 경우를 제외한 13,254개 표본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KLIPS 18차 조사의 통합표본자료에서 개인의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학력, 경제활동상태, 가구주 여부, 가구유형, 주택의 입주형태 및 주택종류를 범주형 변인으로 구성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가구원 수와 총 가구소득은 연속형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지역 특성을 모형에서 반영하기 위해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 지역인구, 지역경제, 지역주택, 지역어메니티 등 각 범주에 해당되는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식 (1)의 모형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지역 특성 변인은 자료의 가용성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서, Fukuyama(1995)는 신뢰

1)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8차 조사에서 행복도 문항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는 0점(전혀 행복하지 않다)~10점(매우 행복하다)의 11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순위형 로짓 또는 프로빗 모형이 실증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Clark and Oswald(2002)는 영국 가구 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한 행복도 회귀모형 분석결과에서 순위형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가 선형모형 추정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한 점을 밝히고 있고, Propper et al.(2005)와 Ballas and Tranmer(2012)는 순위형 로짓 또는 프로빗 모형 대신 선형모형으로 행복도와 설명변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형모형의 경우 식 (1)의 모수를 설명변인의 한계효과로 해석할 수 있어 간결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선형모형의 분석결과가 질적으로 순위형 로짓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이 글에서는 선형모형 분석결과만을 설명한다.

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도덕적 가치가 공유되고, 규칙적이고 정직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 조성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김우철, 2014: 195). 신뢰의 형성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바탕으로 형성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도를 지역사회 수준의 지역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신뢰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utnam, 2000; Ballas, 2013에서 재인용), 실증분석에서는 KLIPS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 문항 중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신뢰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의 7단계 리커드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연속형 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15년 상반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치시군별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연령, 남성 비율을 계산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의 대리변인으로 전문대졸 이상 비율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통계청 KOSIS의 2015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지역경제 특성으로 지역의 소득수준과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군구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KOSIS)과 자치시군별 고용률(지역별고용조사)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경제가 소비지향적인 구조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업 종사자 비율(지역별고용조사)을 설명변인으로 통제하였고, 지역의 집적경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밀도(KOSIS)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지역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의 비자치구를 포함한 시군구별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단순 평균값을 포함하였다. 이 변인을 통해 지역 간 주거비용 수준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계청 KOSIS의 지가변동률 변인을 포함하여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자산 가치의 상승정도를 모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통계청 KOSIS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어메니티 범주의 변인을 구성하였는데, 시군구 지역의 보육 및 교육인프라 수준을 통제하고자 유아(0~4세)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사회복지 및 공원시설 인프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 십 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을 포함하였고, 지역 교통인프라 수준을 통제하고자 도로포장률을 포함하였다. 부정적 지역어메니티 특성으로 지역 오염시설을 나타내는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수, 교통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의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하고자 스트레스 인지율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IV. 분석결과

<표 1>은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군구 수준의 지역 특성과 행복도의 상관관계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특성 변인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신뢰도’

<표 1> 추정결과

종속변인 : 행복도 지역 특성 설명변인	선형모형		
	추정계수	(Robust S.E.)	표준화 계수
사회적 신뢰도	0.211	(0.014) ***	0.170
15세 이상 인구 중 평균 연령	-0.022	(0.016)	-0.035
15세 이상 인구 중 남성 비율	-0.017	(0.031)	-0.012
15세 이상 인구 중 전문대졸 이상 비율	-0.002	(0.005)	-0.012
합계출산율	-0.173	(0.123)	-0.024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436	(0.356)	0.021
고용률	0.032	(0.009) ***	0.065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	0.051	(0.011) ***	0.072
인구밀도	0.023	(0.005) ***	0.107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최저가 평균	0.059	(0.127)	0.010
지가변동률	0.201	(0.034) ***	0.123
유아(0~4세) 천 명당 보육시설 수	-0.007	(0.007)	-0.018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0.090	(0.031) ***	-0.036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0.012	(0.003) ***	0.056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0.003	(0.002)	-0.022
도로포장률	0.007	(0.002) ***	0.055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0.009	(0.004) **	-0.030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0.005	(0.008)	-0.010
스트레스 인지율	0.002	(0.006)	0.006
개인 및 가구 특성	통제됨		
광역시도더미	통제됨		
표본수	13,254		
Adjusted R ²	0.246		
Maximum VIF	8.060		
Mean VIF	2.780		
Breusch-Pagan heteroskedasticity test	130.02 ***		

주 : * P-value < 10%, ** P-value < 5%, *** P-value < 1%, 통합표본 1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sw18p_c)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변인이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여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도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모든 관련 변인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 중 ‘고용률’,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 ‘인구밀도’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지역경제의 노동시장 여건이 긍정적이고, 지역경제 구조가 소비지향성이 강하며, 집적경제의 효과가 클수록 개인의 행복수준도 향상되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지역주택 특성으로 통제된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최저가 평균’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가변동률’은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주거비용 수준의 대리변인으로 통제하였음을 고려할 때, ‘지가변동률’은 지역 부동산 자산의 가치상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분석결과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이 개인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지역인프라, 복지,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지역어메니티 변인 중에서는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포장률’,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가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변인의 경우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사설학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여건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상식과 반대되는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설학원이 많다는 것은 더 나은 진학 및 취업 성과를 위한 학업 스트레스가 해당 지역에서 더 높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후자의 맥락에서 지역의 더 많은 사설학원은 개인의 행복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변인은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포장률’ 변인 역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보다 나은 지역의 교통인프라 공급이 행복도에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변인은 부(-)의 효과를 보여 지역에 환경오염원이 많을수록 개인의 행복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에 관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지역주민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정책들이 많은 경우에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물리

적 인프라의 개선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도로포장률’ 및 ‘사회복지시설 수’ 변인의 추정계수가 정(+)의 효과를 보이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석결과는 ‘사회적 신뢰’ 변인(표준화 계수: 0.170) 이 다른 지역 인프라 관련 변인들보다(사회복지시설 표준화 계수: 0.056, 도로포장률 표준화 계수: 0.055) 행복도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공급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지역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의 고용상태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 변인 중 지역 고용률 또한 개인의 행복도에 유의한 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 속한 지역노동시장의 고용여건 개선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득 증진과 소비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역경제 규모의 성장은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집적경제 효과를 야기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경제적 의미와 함께 지역주민의 행복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셋째, 지역주민의 건강측면 뿐만 아니라 행복도 증진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지역차원의 부정적 어메니티 특성으로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스트레스 인지율’을 포함하였고, 분석결과는 폐수배출업소 변인이 개인의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KL**

[참고문헌]

강성진(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pp.5~36.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우철(2014),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형성: 개인자료에 의한 미시적 접근」, 『응용경제』 16(1), pp.191~224.

통계청(2017),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보도자료.

허만형(2014),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3), pp.231~254.

Ballas, D. and D. Dorling(2013), “The geography of happiness,” *The Oxford hand book of happ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Volume 1, pp.465~481.

Ballas, D. and M. Tranmer(2012), “Happy People or Happy Plac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to the Analysis of Happiness and Well-Being,”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35(1), pp.70~102.

Ballas, D.(2013), “What makes a ‘happy city’?,” *Cities* 32, Supplement 1, S39~S50.

Berry, B. J. L. and A. Okulicz-Kozaryn(2011), “An Urban-Rural Happiness Gradient,” *Urban Geography* 32(6), pp.871~883.

Clark, A. E. and A. J. Oswald(2002), “A simple statistical method for measuring how life events affect happ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1(6), pp.1139~1144.

Clark, Andrew E.(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 pp.323~351.

Dolan, P., T. Peasgood and M. White(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pp.94~122.

Easterlin, R. A.(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Academic Press, pp.89~125.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Luttmer, E. F. P.(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pp.963~1002.

Propper, C., K. Jones, A. Bolster, S. Burgess, R. Johnston and R. Sarker(2005), “Local neighbourhood and mental health: Evidence from the UK,” *Social Science & Medicine* 61(10), pp.2065~2083.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Touchstone Books by Simon & Schuster.